

# 포항시, '청년 친화도시'로 도약... 일자리·주거 등 지원 강화

370억 예산 투입 5대 분야 추진  
창업·취업 프로그램 등 경쟁력 강화  
맞춤 주거 지원으로 독립 기반 마련  
정책 참여 확대 등 지역 성장 도모

포항시가 '청년과 미래를 잇는 도시! 청년 친화 도시 포항'을 비전으로 올해 청년 정책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청년들의 성장과 도약을 위한 지원에 본격 나섰다.

시는 370억 6,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 ▲교육 ▲복지·문화 ▲주거 ▲참여·권리 등 5대 분야의 73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일자리-교육-자산-주거'로 이어지는 희망사다리 구축과 청년들의 참여와 주도를 강화해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청년 친화도시로 발돋움할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글로벌대학 30과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 발맞춰



지난해 청년리더 소통간담회에 참석한 이강덕 포항시장.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한다.

또한 'POBATT(Pohang Battery) 프로젝트' 등 다변화하는 지역 산업 구조를 반영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과 청년의 눈높이에 맞춘 취·창업 지원으로 일자리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근로자 사랑채움 ▲포항형 내일채움공제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저소득청년) 등 자산 형성 지원으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독립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청년 월세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신혼부부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 청년들의 다양한 주거 형태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청년 징검다리 주택 등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하며, 빈 건축물 및 빈집 혁신 대책 추진으로 청년 주거 공간 제공을 확대해 청년의 지역 정주 여건 향상을 도모한다.

시는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 정책학교와 정책 제안대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난해 청년대로(大路) 포항 프로젝트로 배출한 청년 정책활동가 지원을 강화하며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또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청년 행복 뉴딜 프로젝트'로 포항청춘센터 & 청년창업플랫폼을 청년에게 문화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청년 성장을 종합적으로 돕는 '전 분야 지원 종합 거점센터'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청년의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청년들의 실질적 성장과 정착을 위해 전방위적 지원을 하고 있다"며 "청년 정책이 점점 고도화되고 확대되고 있는 만큼 유관부서·지역대학들과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청년 친화 도시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항(경북)=최지용 기자 asdax@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진주시

#### 초소형위성 발사·교신 성공

진주시는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개발한 초소형위성 'JINJUSat-1B'가 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 초기 교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3대의 카메라를 장착한 2U 크기 큐브 위성으로, 지구 사진 촬영 임무를 3개월간 수행한다. 2019년부터 KTL, 경상국립대와 초소형위성 개발 사업을 시작, 전문 인력 양성 및 부품 국산화에 기여했다. 2023년 11월 발사한 JINJUSat-1은 사출에 실패, JINJUSat-1B를 재제작해 궤도 진입에 재도발했다.

/진주(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 양산시

#### 봄맞이 관광 활성화 마케팅 추진

양산시가 '2025 양산 방문의 해' 성공을 위해 봄철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을 추진한다.

'2025 양산 모바일 스탬프 투어'는 스마트폰으로 관광지 방문 및 GPS 기반 스탬프를 모으는 방식으로, 원동매화축제, 물금 벚꽃축제 특별 이벤트, 명산 등반 완주 이벤트가 진행된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11월까지 음식점 결제 인증 이벤트도 운영한다.

시는 대만 해외 마케팅, 전국소년체전 홍보관 운영, 낙동강 봄꽃 페스타 방문 이벤트 등 관광 홍보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양산(경남)=손병호 기자

### 영덕군

#### 과실 생산 기자재 '조기 공급'

영덕군은 관내에서 재배되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의 주요 과수 작목의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해 저온 피해 경감제를 포함한 8종의 기자재를 조기 공급하기 위해 농가 자부담금 포함 10억여 원을 투입한다. 특히, 영덕군은 과수 작과를 향상을 위해 수정 벌, 인공수분꽃가루를 지원하고, 이상기후 대응해선 저온 피해 경감제, 폭염 피해 경감제 등의 기자재를 공급한다. 이밖에 향후 급변하는 이상기후에 대비해 방상 팬, 미세 살수장치 등을 확대 보급해 저온·서리피해, 폭염 피해 예방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과수 농가에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영덕(경북)=손기섭 기자 gbnnews8082@

### 신안군

#### '1004굴' ASC 국제인증 취득

전남 신안군이 국내 최초로 굴 품종에 대해 ASC(세계양식책임관리협회) 국제인증을 공식 취득하게 되었다. ASC는 네덜란드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무역 이니셔티브(IDH)와 WWF(세계자연보호기금) 네덜란드에 의해 설립된 국제 비영리 기관으로서, 환경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기반으로 한 국제 인증 제도로, 지속 가능한 양식업을 실천하는 어장과 양식품종에 부여된다. 1004굴 ASC 국제인증 수여식은 다가오는 03월 19일 신안군수와 신안군의회등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행사가 진행된다.

/신안(전남)=황세훈 기자 pinksea97@

## 전남도, 친환경 수산물 생산기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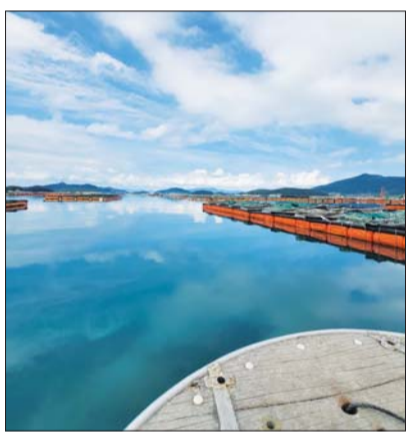
4대 분야 79개 사업에 1680억 투입  
양식 어가 에너지 절감장비 등 보급

전라남도가 바다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어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총 1천680억 원을 들여 스마트 김 종자 배양시설 구축 등을 포함한 4대 분야 79개 사업을 추진, 전남 수산업의 전환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4대 분야는 친환경수산물 생산기반 구축, 양식어업 육성 지원, 수산자원 관리 및 생태계 조성, 어업인 안전 및 복지 실현이다.

친환경수산물 생산기반 구축 분야의 경우 747억 원을 들여 육상 양식 어가에 에너지 절감장비를 보급하고, 친환경수산물 생산 지원을 위한 인증비와 국제인증비를 지원하며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 건설 등을 추진한다.

양식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17억 원을 들여 참조기 양식 산업화 센터 건립, 고부가가치 품종 육성을 위한 종자 공급사업, 어류양식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매



전북양식장(완도 보길도) /전남도

년 발생하는 어업재해에 따른 양식수산물 폐사체 처리와 재해보험료 등에 67억 원 지원해 어업인의 경영 안정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산자원 회복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165억 원의 사업비로,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 해삼 씨뿌림 사업과 인공어초 설치 및 유해생물 구제사업 등을 추진한다. 수산생물의 서식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바다숲 조성 면적 확대를 목표로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 부산시, 교통약자 콜택시 통합 운영

내달부터 2850대 운행

부산시는 오는 4월부터 '장애인 콜택시'와 '임산부 콜택시'의 운영 시스템과 협약 구조를 통합·개편한 '교통약자 콜택시 통합 운영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콜택시는 2012년 도입된 비휠체어 보행상 중증장애인을 위한 바우처 콜택시로, 특별교통수단을 보완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임산부 콜택시는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 2020년 시가 전국 특·시 중 처음으로 도입한 임산부 바우처 콜택시다.

현재 장애인 콜택시는 자비콜 750대, 임산부 콜택시는 등대콜 2100대가 협약해 개별 운영 중이다.

시는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향상하고 콜택시 운

영의 효율성과 최적화를 도모하기 위해 현행 개별 시스템 구조를 하나로 통합 확대 운영한다.

오는 3월 말까지 현행 개별 시스템 구조를 통합해 '교통약자 콜택시 통합 운영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를 완료하고 협약택시 단체와 '교통약자 콜택시 통합 운행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협약 택시는 전체 2850대로 확대된다. 장애인 콜택시는 기존 자비콜 750대에 등대콜 2100대 추가, 임산부 콜택시는 기존 등대콜 2100대에 자비콜 750대가 추가된다.

특히 배차 미수락과 지연 운행 방지 등을 위해 임산부 콜택시의 기사 콜봉사 수수료를 장애인 콜택시와 동일하게 500원을 기사에게 지급해 배차 성공률을 향상할 계획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 창원시, 방위산업 부품·소재 장비대전 시동

7월 9~11일까지 3일간 대규모 개최

창원특례시는 '제1회 방위산업의 날'과 연계해 방위사업청과 공동으로 '2025 방위산업 부품·소재 장비대전'을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7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대규모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두 기관은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을 10일 체결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시동을 걸었다.

이 행사는 각군 국산화 개발 대상품 및 방산기업 제품 전시를 통해 국내 방산 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규모·체계체 등 수요자와 공급자 간 네트워크 형성을 목적으로 2010년부터 격년으로 지자체와 공동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 8회째를 맞이했다.

특히, 올해 2025 방위산업 부품·소재 장비대전은 제1회 방위산업의 날과 연계해 추진되는 첫 번째 행사인 만큼 서울과 창원에서 이원화해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기간중 창원에서는 ▲육·공군 무기 체계 국산 부품 전시회 ▲부품 국산화 발전 세미나 ▲미래 전력 기획 심포지엄 등 기존 프로그램 등 추가로 선보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국내 유일의 중소기업 중심 행사인 만큼 효과적인 전시가 될 수 있도록 체계기업-중소기업 간 상호 소통 강화를 위한 체계 기업 참여 확대 및 부스 매칭, 참가자와 관람객 이해 증진을 위한 첨단 기술과 연계한 기술 교류에 중점을 둔 물론, 국방품질 종합 학술대회도 함께 개최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 경남도, 관광 박람회로 숨은 명소 알린다

오는 20일부터 창원서 개최

경상남도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2025 경남관광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경남관광박람회는 경남도와 창원시가 공동 주최하고 올해 중점 육성 전시회 지원 공모에 선정된 케이앤씨가 주관하는 행사로, 도내 18개 시·군, 관광업계 등 다양한 홍보 부스 운영, B2B 상담과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경남=이도식 기자

최근 내수 경기 침체와 소비 부진 상황에서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는 도민들이 경남의 숨은 관광지를 구석구석 여행하기를 통해 도내 관광 소비 촉진과 내수 회복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 것이 이번 행사의 주요 주제이다.

18개 시·군 관광홍보관을 포함해 관광 기업 등 88개 사 246개 부스에서는 경남 관광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한 번에 만나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